

끝나지 않은 이야기

밤마다 이야기를 풀던

세헤라자드처럼

나는 하루하루 삶의 지혜를 배운다.

"예순살" 다시 빛을 머금은 연필심처럼

마음은 새하얀 노트에 뚫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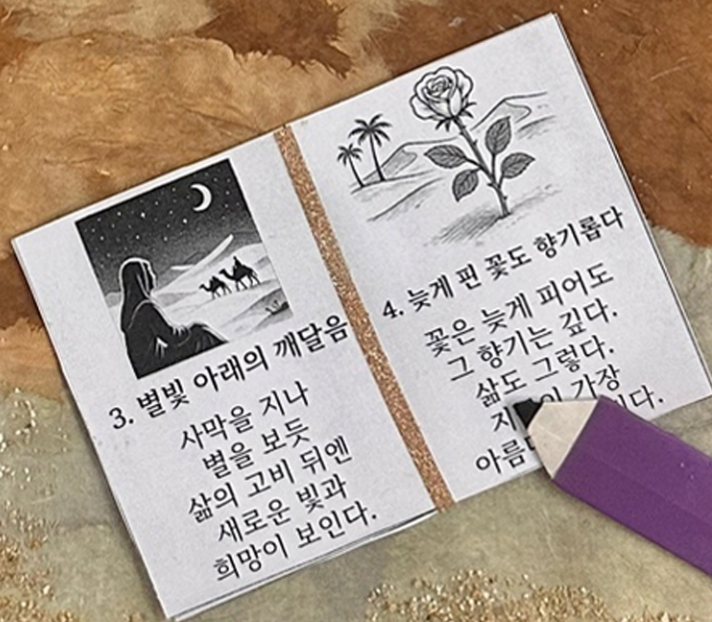
사막을 지나 별을 본 것처럼

늦게 핀 꽃도 향기롭다는 걸 알았다.

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장, 다음 수업, 다음 꿈이

기다려 진다.



GDU 101 고전 문화예술 공모전 작품 소개

고전 도서명

아라비안나이트

작품 설명

[작품설명]

밤마다 이야기를 이어가며 생을 지켜낸 세헤라자드처럼 이시는 60을 넘긴 나이에 다시 배움의 문을 두드린 한 사람의 여정을 담고 있다. 연필을 다시 쥐고 새하얀 노트에 첫 줄을 써 내려가는 용기, 늦게 피었지만 누구보다 짙은 향기를 품은 꽃처럼, 삶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합니다. 이 시화는 끝나지 않은 인생, 그리고 여전히 설레는 '다음 장'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그림설명]

이 그림은 사막 한 가운데 펼쳐진 조용한 밤을 배경으로, 별빛 아래 한 권의 노트와 새로 깎인 연필, 그리고 그 곁에 늦게 피어난 한 송이 꽃이 놓여 있습니다. 사막은 험난했던 세월과 외로운 인생길을 상징한다. 그러나 그 위에 고요히 내려앉은 별빛은 지금의 배움이 얼마나 따뜻하고 찬란한지를 보여준다. 노트는 아직 쓰이지 않은 미래의 가능성을, 연필은 다시 시작된 배움과 삶의 의지를 나타낸다. 특히 꽃은 비록 늦게 피었지만 누구보다 짙은 향기를 품은 삶의 아름다움과 성숙함을 상징한다.